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 1절 눈을 들어 산을보니 도움 어디서오나
천지지는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안게 주가 깨어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 하시네
- 2절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 1절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 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2절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3절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4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2024
설
가정예배



경주 남부교회
인간의 영혼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설 가 정 예 배

예배의 선언 이 시간에는 설을 맞아 2024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383장 ----- 다 함 께

기 도 ----- 가 족 중

성경봉독 ----- 시편 121편 1-8절 ----- 인도자

121: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21: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21: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121:5 여호와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121: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121: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121: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설 교 -----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 인도자

기 도 ----- 인도자

찬 송 ----- 552장 ----- 다 함 께

주기도문 ----- 다 함 께

설교 :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행복한 설 명절을 맞아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믿음의 고백시입니다. 2024년을 살아낼 우리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담기려면 다음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해를 힘차게 시작해보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답답해하고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술한 어려움을 마주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2024년을 시작한 우리들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1편에 담긴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합니다. 다윗을 이렇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는 힘을 더하시고 각종 유혹과 도전에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죄에 빠졌을 때에 친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어 지키시는 손길을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그 삶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을 때 그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2024년 우리 가족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한다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 가족들 간에 오고 가는 소식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